



VACHERON CONSTANTIN

GENÈVE, DEPUIS 1755

메티에 다르 코페르니쿠스 천구 2460 RT

Métiers d'Art Copernicus celestial spheres 2460 RT

-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의 위대한 천문학적 발견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컬렉션
- 세 가지의 혁신적인 장식 공예 기법
- 새로운 메뉴팩처 무브먼트 2460 RT 의 오리지널 디스플레이
- 제네바 홀마크 인증

바쉐론 콘스탄틴의 마스터 장인들은 마음을 흔드는 독창적 재능을 지닌 진정한 예술가들이다. 진정한 예술품을 창조함으로써 그들의 혁신적 정신과 특출한 기술은 1755년부터 여러 세대를 거치며 영속화 되어왔다. 이러한 예술적 노하우는 새롭게 출시된 메티에 다르 코페르니쿠스 천구 2460 RT 컬렉션을 통해 완전히 나타나고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 따른 천문학 세계의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모험하면서도 심플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를 선택했다. 오리지널 디스플레이와 화려한 데코레이션의 새로운 컬렉션은 SIHH 2017에서 공개되며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인 태양중심설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제품이다.

코페르니쿠스 혁명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이며, 1543년 과학 역사상 가장 핵심적 천문학적 혁명을 도래하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 를 발간하였다. 그의 가설은 고대에 뿌리를 둔 우주론적 시스템이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지지해온 이론인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천동설에 대한 도전이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 책에서 태양 중심설을 내세웠으며 지구는 지구의 궤도를 따라 회전하며 달이라는 위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이론은 몇 십 년 후 천체의 타원형 궤도가 설립되면서 완성되었다. 우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인류의 인식에 상당한 철학적 영향력을 미쳤다. 이는 기존의 모든 믿음을 뒤엎었으며 인류를 기존에 머물러있던 폐쇄적인 세계로부터 무한한 우주로 인도했다. 이 혁명은 사고의 모든 분야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초래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세상에 대한 관점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이러한 상징적인 발견에 경의를 표한다.

하나의 다이얼, 세 가지의 형태

메티에 다르 코페르니쿠스 천구 2460 RT 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장인들의 독창성을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컬렉션이다. 장인들은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해석을 지닌 세 개의 다이얼을 생각해 냈다. 시계의 장식은 17세기의 네덜란드계 독일인 지도 제작자인 안드레아스 셀라리우스의 그래픽 묘사법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화려한 바로크 스타일로 가장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다채로운 색상의 천체도 대우주의 조화 Harmonia Macrocosmica 의 작가이다.

컬렉션의 다이얼은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의 타원형안에는 핸드-인그레이빙 한 핑크 골드의 반짝이는 얼굴로 태양을 나타내었으며, 세 가지 버전의 장식 공예 표현법으로 다이얼 바깥쪽을 장식했다. 그 사이의 미세한 타원형 홈은 지구가 만들어내는 궤도를 나타낸 공간이다. 지구는 작은 골드 디스크로 표현했으며, 지름 6.8 mm 의 미세한 반구형으로 램버트식 도법에 따른 대륙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랑 피 에나멜의 예술

이 컬렉션의 첫 번째 모델은 다양한 에나멜링 기법의 자부심을 보여준다. 에나멜 장인은 안드레아스 셀라리우스가 그려낸 코페르니쿠스 시스템의 천체 지도에서 영감을 받아 드로잉 했다. 상르베 그랑 피 에나멜 기법으로 표현된

지구는 파란 대양과 대륙의 지형도를 나타내며 축소된 스케일로 그려내기 위한 테크닉의 정수를 보여준다. 배경의 하늘 지도는 파스텔 컬러의 에나멜로 표현했다. 정교한 선을 그려 넣음으로써 다섯 개의 행성을 타원형으로 분리시켰다. 각각의 천체는 별로 표현 되었고 두 지점(하지, 동지)에 따라 라틴어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다이얼의 바깥 쪽에는 여러 가지 색채의 에나멜로 황도 12 궁 별자리를 나타냈다. 스텐실을 활용하여 모양을 만들었고 깃펜으로 마무리 한 뒤 정교한 붓으로 내부를 채웠다. 이 다이얼은 세심하고 위험을 동반하는 장인정신과 인내심 결과물이자 한 달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숯돌 작업을 통해 매끈하게 만들고 에나멜 층을 겹겹이 쌓고 반짝일 때까지 850 도의 고온의 가마에서 수 차례 구워낸다. 이러한 공정 과정은 제네바 워치메이킹 전통의 우수함을 이어오는데 기여해왔다.

인그레이빙의 예술

두 번째 다이얼은 핸드-인그레이빙 되었으며 바로크에서 좀 더 영감을 받은 미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 황도 12 궁도 별자리는 화이트 골드 디스크 위에서 서로 휘감겨 있는 형태로 장식되었다. 인그레이빙 장인은 라모알레 ramolayé 디테일의 풍부함을 선보이는 동시에 손으로 직접 깎아냄으로써 소재의 볼륨감을 더욱 강조했다. 비스듬한 사선과 깊이감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통해 다이얼을 한껏 꾸며냈다. 궁수자리의 불거져 나온 근육, 또는 전갈자리의 늘어뜨린 갈기는 확대경을 통해 볼 때 더욱 사실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불타오르는 금색 태양 주위로 궤도를 선회하는 지구 위에는 극도로 세심한 디테일의 정수를 보여준다. 바다는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야 할 법한 스케일의 핸드-인그레이빙한 파도로 둘러싸여있으며 이와 대조를 이루는 대륙들은 골드의 광채로 악센트 효과를 주었다. 이는 진정으로 뛰어난 장인정신의 예술적 표현이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워 레이저 인그레이빙과 핸드-인그레이빙의 만남

세 번째 다이얼은 독창적 면모를 지닌 장식 기법으로 꾸며졌다. 지구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는 별자리들은 3D효과로 별을 수놓은 하늘로 덮여있다. 핸드-인그레이빙 된 지구는 파도의 정교한 나뭇결 무늬와 각 대륙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빛과의 대조를 이루어냈다. 손으로 직접 페인팅 된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언더다이얼은 뒷면이 인그레이빙된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덮여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이 문양을 조각하기 위해 혁신적인 레이저 테크닉을 사용하였다. 그 후 에나멜 장인은 레이저로 조각된 무늬가 더욱 눈에 띄 수 있도록 모두 수공으로 작업하여 사파이어에 오팔색의 효과를 입혀낸다. 정면에는 레이저로 별자리가 인그레이빙 되었으며 슈퍼-루미노바로 더욱 강조되었다. 밤하늘의 방대함을 연상시키는 매혹적인 하늘의 광경은 어둠 속에서 완전한 그 모습을 그려낸다.

기술력이 접목된 오리지널 디스플레이

제네바 홀마크 인증을 받은 이 제품들은 메뉴팩처에서 제작한 기계식 셀프-와인딩 칼리버 2460 RT로 작동된다. 3년의 과정에 걸쳐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되고 개발된 이 무브먼트를 통해 태양중심설을 재현한 매혹적인 하늘의 모습을 다이얼로 옮겨낼 수 있었다. 다이얼 가장자리를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삼각형의 4N 골드 소재의 핸드로 시간을 확인 할 수 있다. 테두리를 따라 재단 된 핸즈는 시간을 나타내며, 채워진 삼각형의 핸즈는 분을 나타낸다. 이 핸즈들은 무브먼트 가장자리에 위치한 큰 사이즈의 휠에 의해 움직인다.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궤도는 이 제품의 핵심 요소이다. 강렬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날씨가 지나감에 따라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첫 번째 컴플리케이션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축을 따라 회전하는 지구의 형태를 나타냈다. '회귀선' 기어 트레인을 의미하는 두 번째 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회귀년(태양년)을 의미하며 365.2421898일 동안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궤도이다. 지구의 사실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극도로 정밀한 이 기계 장치는 8,000년간 아무런 조정 없이 작동 가능하다. 컴플리케이션을 위한 이러한 정밀함의 정도는 새로운 무브먼트를 개발하기 위해 전념하는 메종의 모습을 증명하고 있다. 적시적재에 탄생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이 역작은 메종이 지금까지 꾸준히 입증해온 아날로그 시계 디스플레이에 대한 혁신이자, 독창적인 대담함으로 260년 이상 이어온 워치메이킹 기술의 장인정신을 통해 탄생하였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DEPUIS 1755

장인의 손길로 탄생한 디테일

골드 소재의 진동추는 시계의 뒷면을 통해 감상 할 수 있으며 '타원형 궤도에 둘러싸인 빛나는 태양'이라는 동일한 주제로 인그레이빙 된 사파이어 글라스로 보호 되어 있다. 352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셀프-와인딩 칼리버는 36시간 파워리저브 기능을 갖추었다. 완벽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피니싱 처리는 전통적 워치메이킹 방식에 따라 수공으로 마무리 되었다.

12개의 정형화된 별자리들은 직경 43mm 베젤의 테두리 주변으로 인그레이빙 되어있다. 최적의 편리성을 위해 시, 분, 지구가 만들어내는 두 가지 움직임과도 같은 모든 기능을 크라운으로 조정 할 수 있게 하였다. 세 개의 모델에는 미시시피 엘리게이터 스트랩이 장착 되었으며 잠금 장치는 골드 버클로 제작되었다. 이 제품은 특별한 우드 박스에 담겨 제공되며 박스 안의 확대경을 통해 창조적인 예술적 결과물의 정교한 디테일을 살펴 볼 수 있다.

#VCSIH

<http://sihh.vacheron-constantin.com>



VACHERON CONSTANTIN

GENÈVE, DEPUIS 1755

TECHNICAL DATA

Métiers d'Art Copernicus celestial spheres 2460 RT

References

7600U/000G-B212 (Grand Feu enamel)
7600U/000G-B211 (Hand-engraving)
7600U/000G-B226 (Sapphire)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s
Only available in Vacheron Constantin Boutiques

Calibre

2460 RT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37 mm (1 1/4") diameter
6.7 mm thick
Approximately 36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hour)
352 components
27 jewels

Indications

Hours and minutes indication by peripheral hands
Earth orbit around the Sun and Earth rotation on itself

Case

18K white gold
43 mm diameter, 12.9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Dial

18K 5N gold stamped sun
B212: 22K gold, Grand Feu enamel, champlévé Grand Feu enamel Earth
B211: 18K gold, hand-engraved dial and Earth
B226: 18K gold, hand-painted dial (sky); laser engraving & hand-engraving on sapphire crystal (zodiac signs); laser engraving & Super-Luminova® (constellations); hand-engraved Earth

Strap

Black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with alligator leather inner shell,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Buckle

18K white gold buckle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Presentation box

Luxury model

Accessory

Delivered with a magnifying glass